



은행 (Positive)

8월 연체율: 상·매각이 줄면 바로 상승하는 연체 증가율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 RA 권지우 Jiwoo.kwon@hanwha.com 3772-7689

국내은행의 8월 말 연체율은 0.53%(+10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연체의 증가를 누르던 상·매각이 8월에는 늘지 않으면서 연체잔액 증가 속도가 재차 빨라졌습니다. 가계 건전성의 악화는 둔해지고 있지만 보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 중기 및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은행 8월 말 연체율 0.53%(+10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8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3%(+10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84%(+25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0%(+20bp YoY)로 상승폭이 재차 확대됨. 상·매각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임.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05%(-8bp YoY)로 낮은 수준을 지속
- 가계 연체율은 0.40%로 2~3bp의 낮은 YoY 상승폭을 3개월째 지속.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2%(+6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6%(+2bp YoY)로 상승 속도가 둔화된 상태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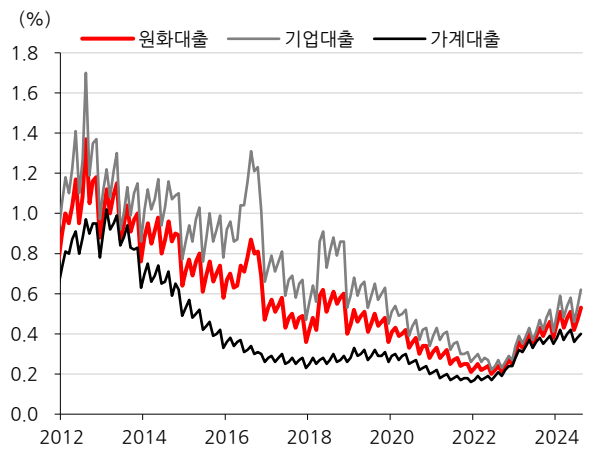
중소기업 연체의 증가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8월 말 12.3조원(+32% YoY)으로 증가 (그림7)
- 기업 (추정): 8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41% YoY로 추산. 법인 중소기업 연체잔액이 전년 동월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자영업자의 연체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대출이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으므로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10)
- 가계 (추정): 8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1% YoY로 추산. 가계의 연체 증가율은 꾸준히 하락하며 연체율의 상승 속도 둔화에 기여함 (그림10)
- 8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3.0조원으로 재차 증가 (그림8). 2022년 11월부터 매월 두 자릿수의 YoY 증가율을 나타내 왔던 월 중 정리(상·매각)된 연체채권은 전년 동월과 같음 1.4조원에 그침

상·매각이 줄면 바로 상승하는 연체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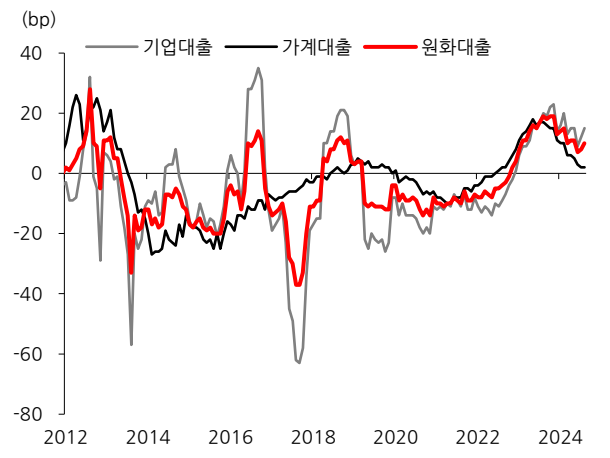
- 은행업종은 새로이 발생하는 연체의 증가에 대해 상·매각 등의 book out을 늘리면서 대응해 옴. 8월에는 연체 정리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연체잔액 증가율이 다시 상승한 모습
- 가계의 건전성 악화가 점차 둔해지는 가운데, 보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주들의 연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러한 신규 연체의 증가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기대. 추후 법인 중소기업 차주의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에 업종 전반의 건전성 우려 또한 정점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은행업종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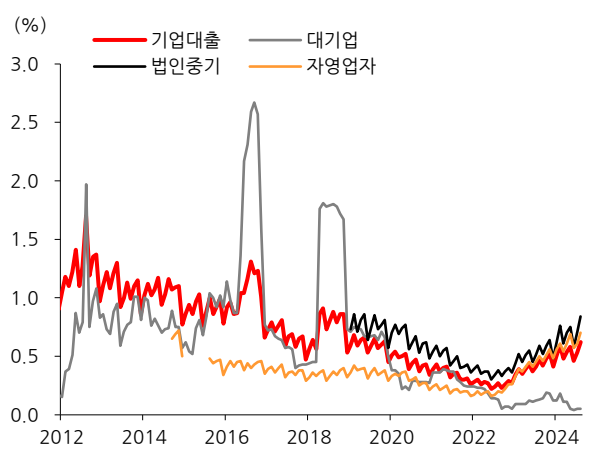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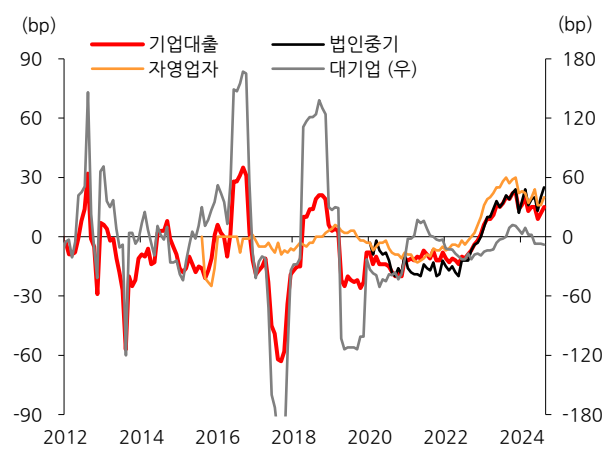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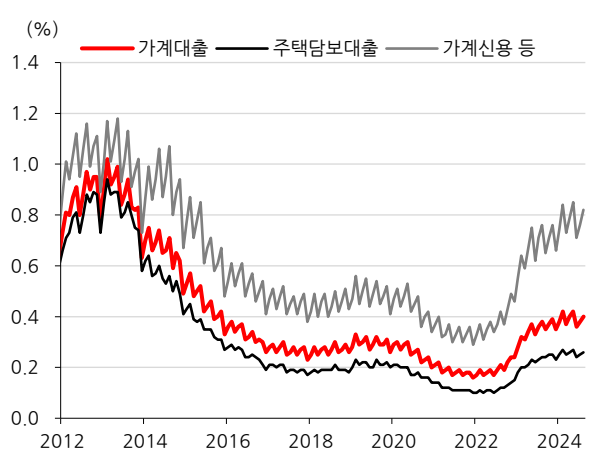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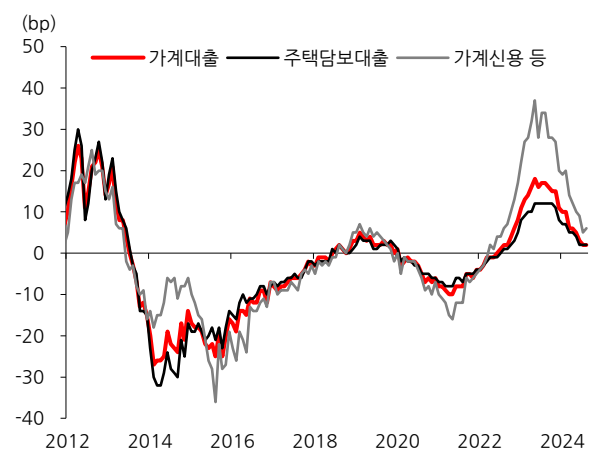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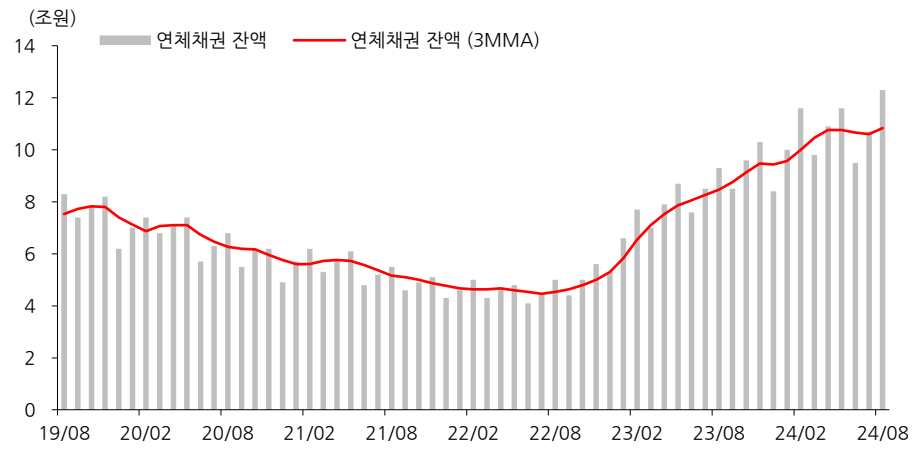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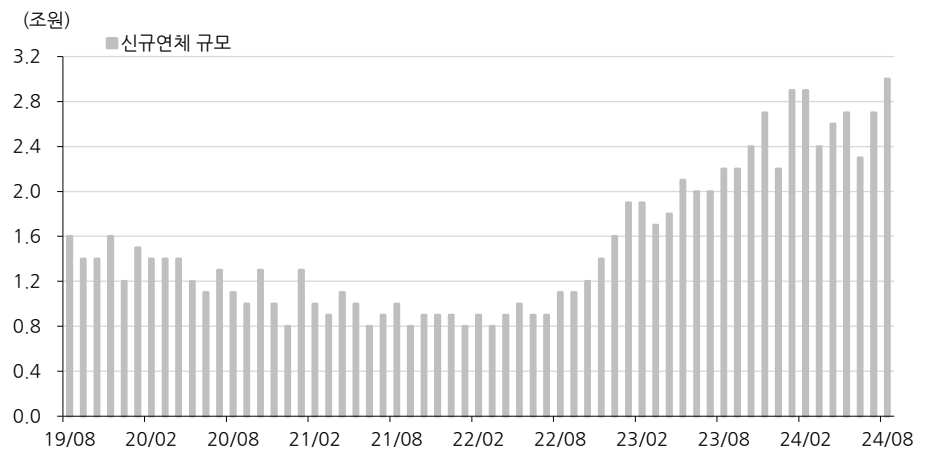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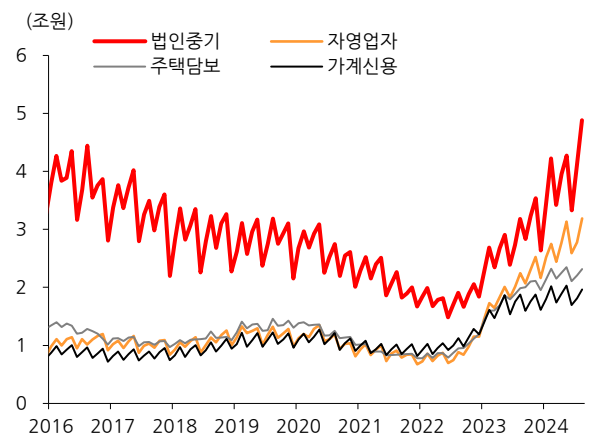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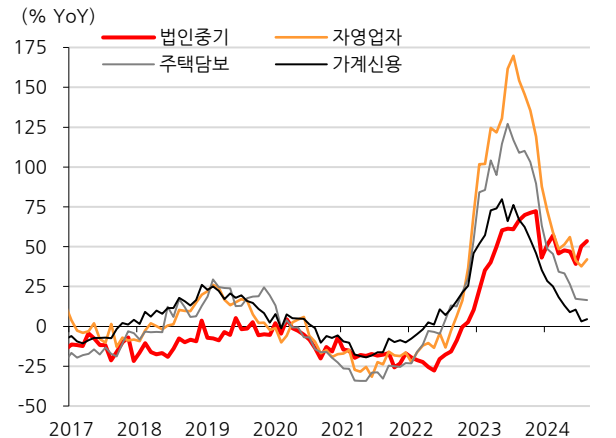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4년 10월 18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권지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년 9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4.3%	5.7%	0.0%	100.0%